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콘텐츠·흥행 눈길 정권교체와 함께 사회성 담은 전시 봇물

2017 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미술포럼

광주폴리III 대한민국공간대상 ‘대상’

‘김넷과’ 등 다양한 전시공간 개관

광주아트페어 관람객·판매액 급감



‘미래들’을 주제로 열린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시의 적절한 주제로 관람객 25만명을 동원했다.

올해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굵직한 미술 행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월 열린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4차 산업 혁명’을 화두 삼아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 시의적절한 주제와 전시 콘텐츠로 흥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모았다.

특히 기존의 디자인비엔날레가 갖고 있던 문화적인 관점과 더불어 ‘산업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미래 일자리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낸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46일간 약 25만여명이 다녀가 흥행에도 성공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형 비엔날레’의 모습도 보였다.

12월 ‘인간×기계 시스템’을 주제로 9개국 33명 27개 작품을 선보인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예술과 인간, 첨단 기술의 관계를 떠올려 보게하는 흥미로운 행사였다. 또 행사기간 중 리우 등 7개국 8개 도시가 참여하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을 통해 광주시 역할 사업인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간 네트워크를 탄탄히 한 점도 의미 있었다. 하지만 행사 기간, 전시장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보였다.

반면 올해로 7회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는 보 조금 부실 정산 등 논란에 휩싸이며 출발부터 삐걱 인데다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갤러리도 질과 양면에서 모두 하락, 국제 행사라 부르기에 민망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압박해 행사 날짜가 잡히고 행사 기간도 줄어들면서 관람객 수가 급감하고 판매액도 저조했다. 일단 광주시가 아트페어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올해 문제를 일으켰던 광주미술협회가 기존처럼 행사를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에는 김선정씨가 새롭게 취임했다. 김 대표이사의 진두지휘 아래 처리되는 첫 비엔날레인 내년 행사는

기존 1인 예술감독 체제에서 벗어나 11명의 큐레이터들이 1~3명씩 팀을 이뤄 7개의 전시를 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시 주제는 ‘상상된 경계’로 잡았다.

‘국 폴리’, ‘뷰 폴리’, ‘GD 폴리’ 등 올해 완공된 ‘광주폴리III’은 8월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전시 공간들이 문을 열어 문화계가 풍성해졌다. 지난 2008년 전남도지사 공간을 리모델링 해 문을 연 광주시립상록미술관은 지난 3월 하정웅미술관으로 재개관했다.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기증한 컬렉션 2523점을 선별해 전시하며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획전과 개인전도 열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또 광주문화예술회관 옛 미술관 자리에 광주시립사건전시관을 열고 다양한 기획전과 강좌를 진행 중이다.

민간 공간으로는 1965년부터 환자들을 치료해온 김내과 자리에 문을 연 ‘김넷과’가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 명소가 됐다. 갤러리와 도서관, 예술호텔, 카페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기획전과 강연 등이 열리고 있다.

또 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 출신의 문화영씨가 학창 시절 살던 전남여고 정문 앞 한옥을 개조해 만든 ‘예술공간 집’은 기획전 ‘다시 호흡하는 시간’을 진행 중이다. 미술평론가 정명숙씨가 지난 6월 매월동진평제에 문을 연 ‘화이트 큐브 갤러리’도 최향전, 정예금전 등 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으며 양립동의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도 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광주 근교에는 목인(木人) 전종주 작가가 섬진강변 순천 황전북초 용림분교를 매입해 문을 연 ‘모 김미술관’, 리채 관장을 지냈던 작가 이양숙씨가 남편에 오픈한 복합문화공간 ‘조이’, 이성태 작가가 문을 연 담양 남촌미술관 등이 있다.

축북, 5·18, 6월 항쟁 등 사회를 향한 목소리들도 화폭 위에 되살아났다. 6월항쟁 30주년 기념전으로 ‘이상호·전정호, 응답하라 1987’전이 열렸으며 재독자가 정영장 작가의 ‘검은 하늘 그날’전은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 오월 현장을 배경으로 한 신작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전’, 이성웅·신창우 작가가 선보인 ‘종이배 우리들의 이야기전’, 담양 담빛창고 ‘노란 나뭇잎’ 추모전이 선보였으며 또 우제길 작가가 96번째 개인전 ‘LIGHT 1406’을 통해 축북집회 현장의 감동을 전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 시대 마지막 남종화 대가’ 아산 조방원 선생의 회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초대전을 비롯해 중견 작가 ‘진원정-꿈의 정원’, 디자인 비엔날레와 연계한 ‘4차 미디어 아트전’, ‘남도가 날은 예술가전’ 등 다양한 기획전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또 문화재단이 지역 작가들에게도 문을 열면서 황영성 작가가 처음으로 ‘우리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밖에 김보현 탄생 100주년 기념전,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린 고(故)오승운 작가의 ‘꽃과 풍수’, 목수 김진송의 ‘개와 의자의 시간’ 등도 눈길을 가는 전시였다.

특히 해남 행촌미술관이 진행한 ‘풍류남도 아트프 로젝트-예술이 꽃피는 해안선’은 공룡박물관, 녹우당, 미황사, 땅끝 미술관 등 지역 명소를 전시관으로 활용하며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 흥미로웠다.

또 광주은행이 한국과 부흥을 위해 처음 시작한 1억원 규모의 메머드 공모전 ‘광주화부’도 첫 수상자를 냈으며 올해 문을 연 ACC디자인 호텔은 1층 ACC 갤러리에서 한희원, 정선, 김익모, 오수경 작가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밖에 오승우 화백은 60년 인생을 담은 대표작 27점을 모교 조선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

‘마법사와 요정들의 퐁퐁스타킹 파티’

미술·음악·무용 콜라보레이션

23일 광주시립미술관 로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미술, 음악, 무용이 어우러진 현대예술 강좌 ‘현대미술 스튜디오’를 진행했다. 바르셀로나 소피아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기획이었다.

미술관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미술인, 무용가, 영상작가, 사진작가들이 함께하는 드로잉 퍼포먼스 ‘마법사와 요정들의 퐁퐁스타킹 파티’를 선보인다.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로비.

퍼포먼스는 ‘재미있는 미술관작업실’에서 발레를 배운 어린이 11명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강사로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마법사가 돼 춤과 드로잉이 결합된 퍼포먼스를 펼친다.

미술관 바닥에 깔린 천 위에서 ‘Multi Spark Creation’ 융합 아트프로젝트팀이 즉흥연주에 맞춰 춤추듯이 얼굴을 드로잉하면 참여작가들이 그 결과물을 기워오려 낙관을 찍은 후 관객들에게 나눠주는 흥미로운 퍼포먼스다. 또 발레를 공연한 어린이들이 요정처럼 작가들 사이를 돌아

다니며 장난을 하고 그 행동과 소리가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고 행위예술이 된다.

미술관 로비 한쪽에서는 작가들이 마법의 카테 일을 만들고, 퐁퐁 김밥을 맡아서 나눠먹는 음식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소리나 행동, 요리 등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행사다.

노정숙·이선영·조성숙·주라영·주홍·송지나·나은영·이상훈·김창호씨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함께한다. 문의 062-613-71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청년문화포럼...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그리고 청년문화 활동가 및 20개 문화단체 연합조직 ‘상상실현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 청년문화포럼’을 마련해 시대적 과제인 청년 문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광주 청년문화포럼’은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보고서’ 결과 발표를 한다.

‘라운드 토론’은 김영남 광주광역시의원,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박기석 광주광역시 예술진흥담당기 지정도론자로 참여하며, 청년 활동가로는 ▲김꽃비 오월김문화기획단 활동가 ▲김병희 퓨전 재즈밴드 ANB 리더 ▲김서영 (사)청년문화허브 운영위원 ▲김지강 일반청년그룹 FGI 참여자 ▲윤준혁 ELI5 ▲이정진 극단바람꽃단원 ▲이정현 (주)플레이비 1%공작소 대표 ▲정성훈 청년그룹 FGI 참여자 등 10명이 함께한다. 문의 062-670-743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누구나 연주하세요...유·스퀘어에 ‘달려라 피아노’ 등장



유·스퀘어 1층 대합실에 기증받은 낡은 피아노를 새롭게 디자인한 ‘달려라 피아노’가 등장했다. 시민 누구나 거리예술가처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로, 김은진 작가의 손길을 거쳐 새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유·스퀘어 제공>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